

하나의 선반을 보시고

2015년 7월 어느날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가공직장의 한 기대앞에 이르시여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 기대로 말하면 직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새롭게 개조하고있는 선반이였다.

이에 대하여 경애하는 그이께 설명해드리면서 일군은 마음속에 송구스러움이 갈마드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다른 기업소들처럼 훌륭하게 꾸려진 현장에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갖추어놓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였다면 얼마나 좋았으랴 하는 생각에서였다.

허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 선반을 손수 살펴보시며 이 직장에서 선반을 자체로 현대적으로 개조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조건에서도 설비현대화를 자체로 하여 당정책을 받들어나가려는 이곳 기업소로동계급의 마음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여 하시는 말씀이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평가의 말씀을 되새기며 공장일군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깊이 새겨안고 자력갱생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갈것을 굳게 결의다지였다.